

중국 자본시장 '창업판(Chinext)' 개혁안 발표

□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4월 10일,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채널 중 하나인 「선전 창업판 개혁 심화 및 신질생산력 발전 서비스 개선에 관한 의견(关于深化创业板改革 更好服务新质生产力发展的意见, 이하 '창업판 개혁안)」을 발표함.

- 혁신 산업 분야의 기술 기업은 유형자산 부족으로 은행권 자금조달에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, 중국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년째 자본시장 혁신을 지속 추진 중임.
- 창업판은 2009년 성장형 혁신 창업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선전증권거래소(SZSE)에 설립되었으며, 최근 배터리, 전자기판, 광전자 등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.

표 1. 중국 본토 내 주요 거래소 현황

구분	상하이(SSE)		선전(SZSE)		베이징(BSE)
거래소명	메인보드	키쥬판 (Star Market)	메인보드	창업판 (ChiNext)	베이징거래소
설립시기	1990	2019	1990	2009	2021
설립목적	국가 기간산업 자본 조달	기술기업 육성	민간 제조 및 서비스 육성	벤처기업 육성	강소기업(专精特新) 육성
시가총액 (조 위안)	67.6	13.3	28.9	20.2	0.9
상장기업 수 (개)	1,707	608	1,496	1,397	308
주요 업종 (시총 기준)	은행, 제조, 에너지 등	반도체, 제조장비, 바이오 등	제조, 소재, 부품장비 등 *가전, 음식료, 자동차, 부동산	제조, 부품장비 등 *배터리, 전자기판, 광전자 등	제조, 부품장비, 소재 등 *기계장비, 화학 등
대표기업	공상은행, 마오타이 등	SMIC, Cambricon, AMEC, Kingsoft 등	BYD, 메이디(Midea) 등	CATL, EVE에너지, 양광전력(Sungrow) 등	BTR, Sugon 등

자료: Wind DB(2026.4.21. 기준),

□ 이번 창업판 개혁안은 △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기업 상장을 위한 기준 개선, △ 사전 심사제도(IPO预先审阅机制) 도입, △지방정부의 정보 제공 강화, △상장 이후 기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임.

- 창업판 개혁안에서는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상장 기준안이 제시됨.
- 신흥산업 기업은 상용화를 통한 시장의 검증이 가능하므로 매출 증가율을 중심으로 평가하고, 미래산업 기업은 장기 R&D 투자를 통한 기술 혁신이 핵심 가치로 R&D 투

자 비중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임.

- 사전 심사제도를 통해 IPO시 제출되는 기술 서류 및 심사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.
-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기업 소재 지방정부가 기업 정보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선전증권거래소에 제공하고, 상장시 재무적 평가 위주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임.
- 그밖에도 상장(IPO) 시점에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 주식에는 'U'표기를 추가하고, 기업의 지배주주, 이사, 감사 등에 대해서는 상장 후 흑자 달성 전까지 최초 3개 회계연도 기간 보유주식 매도를 금지할 예정임.

표 2. 창업판 상장 기준

		시가총액/수익성 기준	매출 기준	성장성 + R&D 기준 신설
수익성 중심		최근 2개년도 이익 발생, 1년 6,000만 위안 이상 이익, 누적 1억 위안 이상	-	-
수익성+일정 규모 매출		15억 위안 이상	4억 위안 이상	-
매출 규모 중심		50억 위안 이상	3억 위안 이상	-
신 설	신흥산업(성장)	30억 위안 이상	2억 위안 이상	상장 직전 3년 매출 CAGR 30%
	미래산업(미수의 허용)	40억 위안 이상	2억 위안 이상	최근 3년 R&D 투자 1억 위안 이상, 매출 대비 15% 이상

자료: 深交所. 2025. 「深圳证券交易所创业板股票上市规则(2025 年修订)」. 中国证监会. 2026.4.10. 「关于深化创业板改革 更好服务新质生产力发展的意见」 바탕으로 정리.

□ 창업판 개혁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본 형성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임.

- 3월 개최된 전국 양회(两会)에서 제시된 6대 신흥 지주산업(반도체, 항공우주, 바이오 의약, 저공 경제, 신형 에너지저장장치(ESS)¹⁾, 피지컬AI), 6대 미래산업(양자 기술, 바이오제조, 그린 수소, 핵융합 에너지(核聚变能), 뇌-컴퓨터 인터페이스, AI 디바이스, 6G)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연계를 강조함.
- 금번 조치는 핵심 기술 자립을 위한 혁신 시스템 구축 수단으로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.
- 아울러 사전 심사제도 등을 통해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한편, 심사 과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
오종혁 전문연구원

1) 중국에서도 AI 데이터센터 확산 및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계통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, 이를 보완하기 위한 레독스 흐름(Redox Flow) 배터리, 압축공기 저장 등 신형 에너지 저장 방식이 부각